

[유니셈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

■ 일반사항

구분	정기주주총회
일시	2017. 03. 20 (월) 오전 9시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남길 10-7 유니셈(주) 본사 1층 강당

■ 상정 의안

No.	의안	
제1호	제21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예정금액 : 주당 현금 40원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형균 선임의 건 (재선임)
		3-2. 사외이사 정은운 선임의 건 (신규선임)
		3-3. 사외이사 오국환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목해야 할 의안 분석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안 내용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만 발췌함)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아래 2.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와 동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포함 국내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제 34조 3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제 34조 4 (감사위원회의 구성)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그 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분석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핵심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법 제415조의2 ①항에 따르면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아울러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통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상근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니셈의 자산총액은 약 956억원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 이사회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이 이사회로 이전됨. 이는 결과적으로 감사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감사는 그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감사가 최대주주 등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종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감사위원회가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됨. 더군다나 유니셈은 2016년 12월 일부 주주로부터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이 제기 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유니셈 기업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